

## [신약 속 미로 찾기 8] “신랑 하나에 신부가 열 명?”

권준 목사 / 1998 / 페이지수: 1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다.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기름을 예비하였고, 나머지 다섯은 어리석어서 예비하지 못하였다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아무리 비유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한꺼번에 열 명과 혼인하는 것은 무엇이며, 기름이 없다고 혼인을 하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유대에 그런 이상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아마도 그때 당신의 혼인풍습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때 당시의 결혼 풍습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한 집안의 경조사가 온 마을의 행사였듯이 당시의 유대에서도 결혼식은 온 마을의 잔치로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열 처녀는 신랑과 결혼할 신부들이 아니라, 그 말의 처녀들로서 신랑이 올 때, 횃불을 켜들고 그 행렬을 맞이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잔치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도 있고, 상석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랑이 오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횃불을 켜놓은 채 기다리다 잠이 들고 신랑이 온다는 전갈에 황급히 뛰어 나가게 된다.

문제는 그때 발생하게 된다.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횃불(긴 막대위에 올리브기름 등불을 매달은 것)과 함께 흑시 모자랄 때를 대비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하였으나 나머지 다섯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름이 떨어져서 곧 꺼질 것 같은 횃불은 없는 것보다 못한 노릇이어서 그들은 기름을 사러 급히 가게 되었고, 그 사이 다섯 처녀의 횃불 영점을 받으며 신랑은 예식장으로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히게 된다.

그 후에 달려온 다섯 처녀들은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여 지치고 실망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먼저 기름을 미리미리 예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다 써버린 기름은 오늘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즉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10년 전에 한 선행, 기도, 말씀 묵상 등이 오늘을 나태하게 살아가게 하는 보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나의 기름을 다른 사람이 대신 예비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쓸 양은 반듯이 내가 채워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꾸어 줄 수도, 꾸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님 신앙 덕에, 남편, 아내 덕에 천국에 물어갈 생각은 관두는 것이 현명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일을 위해 기름을 예비하여 두었는가? 아니면, 어제 풍성했던 기름을 믿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가? 깊은 밤에 기름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